

### 동국대 국제선센터 간화선 법회

선원장 수불 스님 (범어사 주지)

# “눈뜬 삶이 보현보살의 삶”



수불 스님은 ... 지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범어사에서 지유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7년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89년 안국선원을 개원했으며 사단법인 불국토 상임이사, 불교언론문화사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신문사 사장,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범어사 주지를 맡고 있다.

〈전심범요〉는 임제종(臨濟宗)의 기초를 세운 황벽 화운 선사 어록이다. 배후 거사(797~870)는 재가신자로 842년 종릉(鐘陵) 관찰사로 부임한 뒤 황벽 선사를 홍주(洪州) 용흥사로 모셔와 도를 물었고, 848년에도 완릉(宛陵) 관찰사로 일하며 황벽 선사를 개원사에 머물게 하고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때 받은 가르침을 적어두었다가 857년에 간행한 책이 바로 〈전심범요〉다. 수불 스님이 8월 11일 동국대 국제선센터 간화선 법회 강연에 나섰다. 〈전심범요〉 중 '무심이 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번 강연에서 스님은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오늘은 〈전심범요〉 가운데 '무심이 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심하다는 말은 흔히 마음이 없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음이 없다고 하면 목적과 같아서 아무 것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념무상 하는 입장에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무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무심이라는 것은 본래 무심이기에 때문에, 그 이름이 무심일 뿐입니다. 따로 무심을 구할 필요 없이 완벽한 그대로의 입장을 일컬어, 무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 무심한 사람은 일체 마음이 없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이 무심도인 한 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것만 못하다. 그것은 무심한 사람에게는 일체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없이 있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불생불멸입니다. 그러니까 온 적이 본래 없고 간 적도 없습니다. 말로 하자니 '가도 간 바 없이 갔다'고 하지만, 실질적 입장에서 보면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입장이 부처님의 참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처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공양이나 보시공양을 올리는 것을 예로 들어 봅시다. 사실 눈을 뜨지 않고서는 공양을 제대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안목을 열지 않고서는 대체 어디에 공양을 올려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무심도인에게 공양을 올리면 그것이 인연이 되어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반면에 어떤 목적

을 가지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면, 기대하는 바가 커지고 눈이 멀게 되어 늘 기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무심도인이라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기대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안목이 열려야 무심도인이라는 말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안 되면 허망함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가 보는 눈이 모자라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인연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 눈 뜨면, 진리에 대해 쉽게 알아집니다.

〈전심범요〉 첫 머리에 나오듯이, '모든 부처님과 중생은 한마음일 뿐 거기에 어떤 다른 법도 없다.' 이게 중도입니다. 이런 말을 소화하려면, 직접 수행을 통해 안목을 열어야 합니다. 무심한 사람에게는 일체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 공양 올리는 것이 가장 큰 공양입니다. 그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법당에 있는 유형의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그 수준의 중생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참다운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진정한 불법입니다. 우리는 꿈 깨고 진실되게 살 수 있는 수행의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진여 그대로(如如)인 몸이 안으로는 목적같아서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밖으로는 허공 같아서 어디에도 막히거나 걸리지 않고, 주관 객관의 나뉘는 물론 일정한 방위와 처소도 없다. 또한 어떤 모양이나 자태도 없고, 연고 잃음도 없다. 후학들이 감히 법에 들어오지 못하는 까닭은 공(空)에 떨어져 실 곳이 없을까 두려워해서인데, 이런 태도는 막상 비방을 보고는 물러나서 거기다가 널리 지견(知見)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견을 구하는 자는 쇠철처

**“무심도인에게 공양 올리세요  
불전에 목적갖고 공양 올리면  
눈이 멀게 되어 늘 기대가 됩니다”**

**안목 열어야 진정한 믿음 성취  
밝은 눈 뜨려면 선지식 지남 받아야**

럼 많아도 정작 도를 깨친 이는 빨과 같이 드문 것이다.'

순간 밝아졌으면, 해를 가리는 구름이 있다고 깨달은 게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배후 거사는 좀 전에는 봤는데 지금은 안 보이니까, 당황스러운 입장에서 완벽하게 눈뜬 입장의 황벽스님께 그 까닭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님처럼 밝은 눈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까 하고 말이죠.

#### 문수·보현보살은 따로 있지 않다

아예 공부가 무엇인지 모르는 입장에서 두려울 것도 없지만, 배후거사처럼 눈을 열었는데 아직 애매모호한 것이 남아 있다면, 경우에 따라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감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다가올 때는 아찔해져서 여유를 잃고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치만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벗어난 입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말든 상관 없이 의연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지식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은 이치(理)에, 보현보살은 행실(行)에 해당한다. 이치란 진공(眞空)으로서 걸림 없는 도리이고, 행실이란 형식을 벗어난 끝없는 실천을 말한다.'

문수·보현보살에 대해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실제로 어떤 분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문수보살이든 보현보살이든 따로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나타난다고 한들, 그것은 상에 불과합니다.

안목을 갖춘 입장의 실천이란 부처님 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보살의 눈을 따라 비로소 보현보살의 행을 알고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일벌려서 말하는 순간, 그것은 배워서 이해한 것을 이치를 빌려 말하는 소리에 불과할 뿐, 진정한 보현보살의 행이라는 것은 깨닫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안목을 열어서 원만 구족한 모습을 살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보현보살의 삶과 같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이 없이는, 하루 종일 육바라미를 실천하며 보현행원을 한다 하더라도, 상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는 '바라미를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관음보살은 자비를, 세지보살은 지혜를 상징한다. 유마는 깨끗한 이름(淨名)이란 뜻인데, 깨끗하다는 것은 성품을 두고 하는 말이고, 이름은 모습(相)의 측면에서 한 말이다.'

사실은 모습도 없는데, 모습 없는 모습을 세상에 말하려다보니 이름을 빌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하고 드러낸 것입니다. 그 까닭을 알기 위해서는 불

법의 올바른 눈을 따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관세음보살을 진언하는 분도 더러 있지요.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면, 마구니에 속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진정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모든 종류의 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초심자를 믿어 들어오게 해서, 그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 장지를 시찰하지만, 거기에 오래 머무르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안목을 열어야 진정한 믿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실상을 모르고 혼자서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보다는, 선지식의 가르침에 의거해 올바른 공부를 지어가야 합니다.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만 깨치면, 문수·보현보살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말이나 형상에 속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벽스님이 배후거사에게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참다운 실상에 눈뜨라고 간곡하게 일러주시는 것이 〈전심범요〉입니다.

불교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간에 머물고 집착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향상일로의 공부를 지어가야 합니다. 대승불교와 선(禪)이 세상에 출현하여 정법을 제시하고 시비분별을 끊어서 우리로 하여금 불법에 대한 바른 안목을 열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심이 도다, 평상심이 도다 하는 말들은 그때그때 설명하기 위해 모양을 그려낸 것일 뿐입니다. 그 까닭을 알면 밝은 눈이 열리고 매사에 걸림이 없게 됩니다. 배후거사는 의문이 일어나 자꾸 묻고 있지만, 결국 선지식의 지남을 받아 눈을 따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국대 국제선센터 간화선 법회에 참여한 대중들이 스님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동국대 국제선센터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후에 간화선 법회를 열고 있다.

##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 ① 일 정 : 2012. 8. 25(토) 오후 1시부터 ~ 8. 26(일) 오후 6시까지
  -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 2 매주 화요일 강좌(11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이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 - 강원 교육 -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을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지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12년 8월 1일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2년 9월 4일 화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 - 범패 · 작법무 -

#### 불교예술평대 학

● 교 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 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 ◇원서교부 : 2012년 8월 1일부터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12년 9월 7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